

◆ Current Developments in General and Library Education

一般教育 및 圖書館教育의 近況

마이더 보애즈 저*

石 仁 澄 역**

장차 美國에서 改革이 일어난다면, 그 중심지는 大學內가 될 것이다. 大學은 學生들 속에 갖든 새로운 文化精神에 호응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 司書는 도서관의 사회적 위치를 면밀히 點檢, 다시 평가하고, 도서관이 베푸는 제반 봉사 활동들을 새로이 策定하여, 도서관의 역할과 장래가 어떠하리라는 主見을 확립해야 한다. 專門司書職을 양성하는 도서관교육 프로그램을 세움에 있어서, 마땅히 새로 대두되는 技術工學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지도자, 젊은이, 그리고 기획담당자들에게는, 미래의 도서관을 위한 계획에 心血을 기울여 헌신할 것이 요구된다. 모든 司書는 技術工學上의 難題를 극복하고, 廣範圍한 문제들을 빠짐없이 다룰 수 있는, 專門化된 道具와 老練한 技術을 要한다. 또한 모든 圖書館學校에서는, 到來하는 西紀 2,000年代의 도서관에서 일할 司書들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예상하고, 이에 對應한 教科課程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圖書館教育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專門職教育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一般教育의 現況을 검토하여야 하겠다. 全美國의 全體歷史上에 일어났던 모든 變化보다도 더 많은 變化가 오늘 날 大學內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변화 중에는 一個 大學機構內에서의 組織패턴에 관한 것, 이를테면 규모가 큰 一個 綜合大學內의 소규모 單科大學의 群生같은 것도 있다. 또, 어떤 것은 世界問題에 관한 교육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위한 계획 등, 넓은 개념에 관련된 것도 있다. 혹은, 教科課程의 改編에 관한 事項을 다루며 教科課程 計劃上의 學生 參與問題를 취급하기도 한다. 또 다른 변화로는 教授工學이나 自律學習을 위한 프로그램 등, 授業의 새로운 方法과 技術에 集點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대학은 變化와 進歩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곳이다. 콜럼비아 대학의 교수 다니엘·벨(Daniel Bell)은, 過去 미국에 있어서 改革의 중심지는 實業界이었으나 未來에는 그것이 大學社會內가 될 것임을 示唆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대학이 社會的 任務의 淸무대가 되거나, 社會落第生이 援護處가 되어서는 안되리라는 것을 表明하였다. 大學은 마땅히 知性的 諸尺度를 養는

中心地가 되어야 한다. 이 知性的 尺度는 大學當局의 탁월한 領導力에 의해서 또 經營陣·教授團·學生側의 三者가 共同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傳統的으로 경영자와 교수들은 모든 계획 수립에 참여하여야 했다. 이제는 학생들 또한 發言權을 요구하고 나선다.

오늘 날의 학생들은 理路整然하여 公言을 일삼는다. 그러나 每事에 通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說得力이 있고 말을 잘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쓰기보다는 말에 더 능한 편이다.(어찌된 셈인지, 文章力을 위한 교육은 오늘날 소홀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일, 학생들이 그들의 지독한 深刻性에다가 약간의 유우머를 섞을 줄 안다면, 그리고 그들의 理想主義에다가 인간의 限界에 대한 약간의 理解와 同情과 憐憫을 섞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獻身的 노력을 기리는 바이다. 그들도 貢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10代 청소년들의 웃이나 머리 모양을 흉내내고 다니는 50代·60代의 사람들과는 통하지 않는다. 中年의 히피는 가련하고도 우스꽝스럽다.

모든 世代는, 어떤 면에서는, 不信의 世代임과 同時에 妥協의 世代이기도 하다. 젊은이들은, 일찌 단결하여 妥協에 항거함으로써, 그들 자신끼리 이미 妥協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模倣의 選手이기 때문에, 既存秩序에 대한 그들의 지독한 비판은 어느새 그들 자신이 既存秩序의 형태를 갖춘다. 專制者에 대한 비판의 위협은 너무도 쉽게 새로운 專制로 이끈다. 사랑과 부드러움에 대한 히피의 神秘는 지나친 脫線과, 허황한 信條와, 극도의 殘酷性, 예컨대 Tate家의 殺人사건이나 Manson 家族들에 대한 殘酷性 같은 것에서 끝장이 날 수 있는 것이다. 흠어진 머리는 흠어진 생각을 가리킨다. 그런가 하면, 많은 長髮族 靑年들이, 그들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知性的이고, 思慮整然하고 慎重하며 分別있는 면을 보여 주기도 한다.

歷史는 進歩가 不滿의 所産이었음을 말해 준다, 우리의 위대한 指導者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非妥協主義

*사우드 켈리포니아大學 圖書館學校 學長

**KORSTIC 司書

者였고, 自己中心的이었다.

이와 같은 傾向의 도서관 교육에 대한 挑戰도 價値있는 것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직업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圖書館學校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종류의 졸업생들이 專門職責을 맡을 것이며, 또 장래의 지도자가 되려하는가?

비펄로(Buffalo) 所在 뉴우요크 州立大學總長 마 아틴·메이어슨(Martin Meyerson)은 얼마 전에, 대학은 학생들 속에 깃든 새 文化精神에 호응할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專門職教育은 좀더 學問的 知的 品位를 높임으로써 體質改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적하기를 대학의 학문적 연구는 社會的 目的에 貢獻하는 것(사실 이것은 전문적 종사자의 奉仕精神을 대표하는 것이다)과도 直結되는 것이므로 傳統的 研究에서 目的性의 缺如를 느끼고 있는 학생들에게 中극적인 連帶意識을 주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훌륭한 도서관 교육, 이것은 어려서부터 시작되는가? 어느 곳에서는 시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몇해 동안 '進步的인 教育'을 해 왔다. 그러나 얼마만큼 진보되었는가? 연합통신사의 특파원인 사울·페트(Saul Pett)가 지적한 것과 비슷한 逆說的인 現象이 있는 최근 記事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달의 噴火口에서는 마음놓고 걸지만, 뉴우요크나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의 公園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生活水準이 오르는 반면 그 滿足度는 減少된다. ……國民總生産高는 國民總安定高와는 反比例로 높아진다. 비행기는 더 빨라지고 자동차도 더 빨라지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찾아가갈 깨끗한 장소는 없어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난다.⁽¹⁾

페트(Pett)는 또 人生의 價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勤勞週間이 줄어 들수록, 休息時間은 길어지고 수면제의 판매고는 상승한다. 새로 서는 教會는 교회를 닦지도 않았고, 핫·덕집은 宇宙船같이 보이고, 남자는 여자 같고, 모델도 로코코식 동굴집이나 스위스식 오두막집이나 혹은 시골 牧場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당신은 단돈 25천으로 침대를 떨게 할 수 있는 것이다."⁽²⁾

圖書館 教育, 이 方向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우리는 教育·指導者와 장래를 豫見하는 사람과, 일깨우고 推進하는 사람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渴望한다. 우리는 도서관 교육 그리고 도서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改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실한 陳述과

結論을 요구한다. 우리는 헌신적이고 영도력이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萬事를 다 해치우지는 못하는 법이다. 政府가 그렇듯이 지도자들에게도 자신의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 자신 政府職員의 한 사람인 다이엘·P 모이니한(Moynihan)은 政府의 입장에 대해 말하는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公言한다. '政府에서는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졌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尊重할 수는 없다. 政府는 人生에 意味를 주는 일이나, 마음의 平和를 제공하는 일에는 無力하다.' 도서관 司書로서의 우리는 잠시 일을 멈추고 곰곰히 생각하여, 도서관의 사회적 위치를 다시 저울질해 보고, 도서관이 베푸는 諸 奉仕活動을 새로이 評價하며, 도서관의 기능과 장래를 判定해 보아야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그런 然後에야, 우리는 미래의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교육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技術工學의 影響

지금까지 圖書館界의 변화에서 가장 많이 言及되고 있는 것은 도서관의 技術工學分野다, 그러나 실제로 向後 10年안에 技術工學上의 實質的인 變化가 있으리라고는 豫想되지 않는다, 오이팅거(Anthony G. Oettinger)는 그의 著書 '달려라, 컴퓨터여, 달려라'에서 "外樣만의 變化를 마구잡이로 채택하는 것은 實質的인 變化를 내내 沮害할 심각한 위험이 있다."⁽³⁾고 말한다.

公式化된 教育制度란 마치, 變化를 沮害하기 위하여 서만 아주 理想的으로 考案된 듯한, 그런 社會에 얽매어 있다는 事實이 지적되고 있다. 進步의 缺乏에 대한 理由는 있다. 大學에는 돈도 없고, 대개의 경우 技術工學上의 發展에 對處할 만한 창조적인 머리도 없다. 오이팅거는 지적한다. 재빨리 눈에 띄이는, 진보의 幻想에 불과한 길만을 택하는 改革風潮가 만연하고 있다

技術工學에는 많은 돈이, 정말 많은 돈이 든다, 더 많은 教育資源에는 더 많은 돈이 들고, 더 잘 훈련된 사람에게에는 더 많은 돈이 들기 마련인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技術工學과 奉仕活動을 향유하려면, 이를 위해 代價를 지불해야 하는 법이다.

도서관과 도서관 교육을 위한 技術工學의 意義는 무엇인가? 테프코·사라치비치(Tefko Saracevic) 및 알란 M. 리이스(Alan M. Rees)는, "도서관 實務에 있어서의 情報科學의 영향"이라는 論文에서, 도서관 業務節次上의 컴퓨터 적용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두 사람은 말하기를 "도서관 실무에 주어진 주요한 영향은 특히 컴퓨터 같은 情報用 技術工學에서 나왔고, 情報科學內의 기초 연구에서 야기된 것은 아니다."⁽⁴⁾고 한

다. 이상의 두 著者는 또 좀더 특수한 科學的 適用問題를 論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현재 정보과학과 도서관 실무 사이에는 거의 완벽한 간격이 介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만일 이 간격이 메워지지 않는다면, 圖書館學이 자질구레한 기계 장치를 산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一大革新을 期하기는 틀렸다.”⁽⁵⁾ 情報工學이 도서관 업무의 처리과정을 변경시키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이 없다. 그러나 기술상의 기초만큼 학문상의 기초도 필요하다. 도서관에 장차 큰 힘이 될 情報科學內에서, 의미있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 이론과 실제 사이에는 極少의 交流가 있을 뿐이다. 兩者 사이에는 마땅히 相互作用과 交流가 있어야 한다. 도서관 학교에서는, 만약 財政的인 뒷받침만 얻을 수 있다면, 研究活動과 實際應用을 並行할 수가 있을 것이고, 도서관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그 兩分野를 함께 教育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과 새 技術工學內에 일어나고 있는 變化들이 專門職 도서관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날 도서관에 일하려 나가는 司書들은 技術工學上의 進척을 잘 다루고 이용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電子 계산기와 情報處理器具의 이용은 情報의 保管과 檢索에, 資料複寫의 방식에, 매일매일의 기계적인 일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로 考案된 기구는 도서관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테지만, 도서관 봉사 활동의 主要目標를 변경시킬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나 도서관 업무에 정보 처리 기구를 소개하는 일은 중요하며, 또 마땅히 설명 되어야 한다. 도서관 학교에서는 敎科課程을 검토해야 하고, 情報科學의 새 科目을 첨가할 필요성을 참작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가르치고 있는 科目의 質을 높이는 일과, 새로 대두되는 봉사활동의 내용이나 전통적인 봉사 활동에 대한 보다 効率的인 遂行方案을 계획하는 일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에서 점차로 중요시되는 情報資料의 傳達問題는 情報와 情報蓄積, 情報의 傳達 및 流通에 관한 것이다. 도서관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학생들이 이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敎科目은 이들 이론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現在 出版物의 刊行率을 본다면, 書籍이나 逐次刊行物 모노그래프 등의 출판이 數的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수집·처리·보관하는데 드는 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도서관 相互間의 協助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指適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도서관 상호간의 협동은 諸資料의 共同利用과 각 도서관마다의 자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인 것 같다. 그러자면 자료의 선택 또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다.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수많은 자료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은, 사서들에게 점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知識, 分別力, 判斷力 등은 사서의 중요한 재산이 될 것이다. 自動操作機의 利用과 기계가 다시 모양을 바꾸어 낼 수 있는 형태로의 도서관 자료의 축적은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저장된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브루킹스 연구소 회원인 H. 올란즈(H. Orleans)에 의하면, 250 페이지 짜리 책 100만권을 $\frac{1}{200}$ 로 축소하는 인쇄비는 18,750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서어비스가 이룩되기 전에, 우선 정보과학자, 사서, 컴퓨터 전문가들에게 다 같이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제도가 先行하여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웨이브式 通話, T.V., 기타 여러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빠르고 쉬운 通信 시스템은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또 세계를 건너서, 정보의 접근을 가능케 하고, 연구 활동이나 정보 수집을 위한 여행의 필요성을 줄여 줄 것이다.

電寫送達에 의한 通信

장거리 간의 原文電寫는 도서관계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한 傳送式은 資料의 폭등과, 重複과, 신속한 전달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도서관 상호간의 대출에 대신하여, 原文傳送에 있어서 이미 이러한 방식이 실천되고 있다. 이것은 아직 뉴우요르크 주와 캘리포니아대학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電寫와 관련된 문제점 중의 하나는 經費문제다. 그러한 送達方法의 대부분은 매우 비싼 媒體인 마이크로웨이브에 의해서 실행되어 왔다. 그리고 電寫送達方法이 실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一方, 극단적인 생각들은 西紀 2,000年代에 가서는 사람 개개인이 중앙에서 조정하는 전기 기계 장치, 즉 콘솔(Console 보통 스위치·다이얼·타이프라이터가 달려 있음—譯者)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人間과 技術工學關係에 대한, 문제의 理論家인 H. 칸(Herman Kahn)은 下院 科學分科委員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장차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조종기가 달린 콘솔 장치를 각자 가슴에 부착하고 다니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을 한 바있다. 線을 통해 腦까지 뻗친 조종기는 여러가지 재미있는 해답을 作動해 낼 것이다. 칸은 “여러분은 장차 10개의 조종기를 갖춘 콘솔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豫言하면서,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의 콘솔을 가지고 장난

을 일삼아서는 안되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여 말하였다. (6) 그러니 결국 개개의 콘솔을 컨트롤할 또 다른 콘솔이 있어야만 하는 셈이다.

마이크로폼 技術

마이크로폼과 複寫技術은, 많은 사람들에게, 컴퓨터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도서관에서 중요하게 생각되어 왔다. 이 방면의 技術工學은 도서관 자료의 蓄積·經費支出·취급 및 貸出 등에 있어서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크로폼은 도서관 藏書를 보충할 따름이지, 이를 대신하지는 못할 것이다. 현재 도서관에 쌓여 있는 學者들의 방대한 업적은 서기 2,000년대의 도서관 책들 속에도 여전히 健在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 중에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著作權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複寫機의 사용은 책의 권수를 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지적되고 있다. 즉, “文獻複寫物을 널리 傳播시키기 위한 實際機構의 發達과, 그러한 複寫物에 대하여 版權所有者를 補償하는 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를 위한 立法化가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7)

마이크로폼 技術工學의 문제점의 하나는, 마이크로폼 生産에 있어서, 아직 標準化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弱點이다. 현재 마이크로폼은 그 형태와 크기가 各樣各色이어서 竝用이 不可能하다. 도서관에서의 마이크로폼 사용 與否는 이의 標準化 여부에 달려 있으며, 또 기체 조직이 그 最終形態를 어느 정도로 빠르고 값싸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또다른 必要不可缺의 요소는 使用法이 간편하고, 설치 비용이 싸게 먹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이크로피시(Microfiche)

超마이크로피시(ultramicrofiche)의 長點은, 最近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한 모임에서, M.J. 애들러(Mortimer J. Adler)에 의하여 발표된 바 있다. (超마이크로피시란 500 내지 600페이지 짜리가 4"×5"카아드에 縮寫된 것을 말함) 그 모임에 참석했던 E.C. 제스트스(Edward C. Jests) (8)도 애들러의 말을 인용, UMF(ultramicrofiche)는 페이퍼백의 개발 이래 가장 큰 出版界의 事件이라고 말하고 있다. 大英百科辭典會社에서는 곧 ‘美國文明文庫’의 出版을 企劃하고 있다. “이 文庫는 약 2萬餘 標題에 약 600萬페이지에 달하는 書籍·雜誌·寫本·팜플렛·브로어드사이드·演劇프로地圖·日記 그리고 政府刊行物 등, 美國文明의 諸樣相

을 전부 網羅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이 방대한 文庫가 겨우 카아드·테이블 윗 부분을 채울 정도에 不過하다. 또 이는, LC에 의거한 여하한 카아드 목록 속에도 섞어 넣을 수 있는 목록 카아드를 갖고 있으며, 원한다면 磁氣테이프(magnetic tape) 목록도 갖게 될 것이다. 價格도 每 標題當 1달러 미만으로 계산된 15,000\$에 不過할 것이다. 무게가 3파운드도 안되게 考案된, 回轉式 擴大鏡장치(lap viewer)는 칩대에 누워서도 UMF를 읽을 수 있으니 참으로 편리할 것이다. 여러 종류의 資料源을 널리 분배하는 것 또한 UMF를 통해 가능하다, 또 獨學에의 趨勢를 촉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奇蹟의인 발전들은 또 있다. MIT의 INTREX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C.M. 스티븐슨(Charles H. Stevens)은 Electrical Design News誌 1968年 12月號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실리고 있다. 技術者들은 技術工學을 통해서 情報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것이며, 工學便覽이나 目錄表 등은 이미 과거의 遺物이 될 것이다. 그는 또 말하기를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책을 소장할 것이나, 映寫幕을 가진, 지갑만한 크기의 無線 텔레미널(teleterminal)이, 各 技術者들로 하여금, 지구에서건 달에서건 어디에서건 모든 情報과 情報源에 接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시스템分析의 接近方法

漸高하는 技術工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 왔는가? 現實의으로, 요새 技術工學이 誤用되어 온 경우가 많았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宇宙探索 계획은 우리의 목표가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바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S. 라모(Simon Ramo)가 말하는 것처럼, 일단 이 地上의 문제로 끌어 내렸을 때에도 꼭 有用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미국의 ICBM프로그램의 前 首席科學者였고, 지금은 Thompson Ramo Woolridge 財團의 副理事長인 라모氏는 月世界 探索計劃은 다른 나라의 挑戰에 대한 反射行爲로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한다. 불행히도, 소련인이나 중국인은 도서관 교육 분야에 있어서만은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태세에 있지는 않다.

앞에서도 지적되었던 것처럼, 도서관 교육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미래의 도서관이 어떠한리라는 것과, 장차 세계의 시민이 여하한 도서관 奉仕活動을 요구할 것인가에 대하여 연구하는 일이다. 우리는 광범위한 문제를 처리할수 있는 裝備, 즉 專門化된 道具와 노련한 技術을 갖춘 司書를 필요로 한다. 모든 司

書는 시스템分析의 接近方法을 알아야 하는데, 시스템分析의 接近方法이란 간단히 말해 現實的인 面에 적용되는 常識 및 論理에 不過하지만, 적어도 技術的 要因이 분석될 수 있어야 하고, 統制와 裁決에 따른 節次를 계획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의 體系는 系統을 유지하고 聯關性을 알아서 方法論과 組織的 體制를 갖출 수 있어야 한다. 그후, 殘餘問題中, 人間關係面만을 集中 研究함으로써 組織內의 諸般 人間問題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科學技術上的 道具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그는 즐거이 어떤 일을 결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기를 원해야 한다. 그 때야만, 그는 첫번째 사업의 經營技術을 다음 사업에도 응용할 수 있는 實利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S. 라모(Simon Ramo)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인간을 달에 착륙시켰던 方法을 우리들 地上問題에 利用함으로써 덕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 시민의 참여를 표방해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한층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또 人間の 달 着陸이 그랬던 것처럼, 國家的 次元에서의 領導力에 의한 斷乎하고도 果敢한 決斷을 요구한다.”⁽⁹⁾ 그리고 도서관 교육에서 우르는 바야흐로 지도자와 젊은이와 기획인들을 필요로 한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도서관 및 도서관 봉사활동을 의미하는 미래의 도서관을 위하여, 또 研究活動에, 또는 우리가 원하는 봉사활동에 기여할 技術工學上的 克服에 그리고 到來하는 西紀 2,000 年代의 도서관에서 일할 司書들의 교육을 담당할 圖書館學校의 教科課程 樹立에, 모든 關心과 注意와 獻身과 公約을 맹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배출하는 도

서관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引用 文 獻

1. Saul Pett, "Bleak Look at the Quality of Life." *Los Angeles Times* (Sunday, Feb 15. 1970), Section G.P.I.
2. Ibid.
3. Anthony G. Oettinger, *Run, Computer, Run*. Caml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versity Press, 1969. p.217.
4. Tefko Saracevic and Alan M. Rees, "The Inpact of Information Science on Library Practice." *Library Journal* 93:p.4097(November I. 1969).
5. *Ibid.*, p.4099.
6. Herman Kahn이 *Los Angeles Times*(Thursday, Jan 29, 1970), Part I, p.6에서 인용했음.
7. Doubles M. Knight and E. Shepley Nourse, eds., *Libraries at Large*. New York, R.R. Bowker, 1969, p.328.
8. Edward C. Jestes, "Little Fiche Eat Big Librarians One Whale of a Story" *Wilson Library Bulletin* 44 : p.650(Feb. 1970).
9. Simon Ramo, "Systems Approach to Man's Future". *Los Angeles Times* (Sunday, February 15, 1970), Section G. p.7.

◆ 編輯者註 : 본고는 *Special Libraries*(vol 62.70. 4 p.p.179—184) 1971년 4월호에 실린 Dr. Martta Boaz의 "Current Developments in General and Library Education을 번역한 것임.) ◆

正 誤

전호(1972.3)에 게재된 李載喆 教授의 “東西著者記號表의 특징과 그의 새사용법에 대하여 (下)”의 誤植을 다음과 같이 바로 잡읍니다.

面	段	行	誤	正
80	右	下15.16	김 46산 인	김 46산 기
81	左	下11.12	최 95겨 1957	최 95겨 1964
81	右	下2	마을의 섹터	마을의 섹터
82	右	下6.7	바 14표 바 145	바 14표 14-강 바 145

84	右	上1	ㅎ 68	ㅎ 78
85	左	上3	ㅇ 90.57ㅈ 아 90.57ㅈ 아 90.57ㅈ	ㅇ 90.57ㅈ 아 90.57ㅈ 아 90.57ㅈ
86	右	下14	G 421	G 42
86	右	下7	G 422	G 427
87	左	上20	물를	물른
87	右	上7	한자리로 기 호로	한자리 기호로 호로
87	右	上26.27	이마디얼형식의	아이 디얼형식의
88	左	上1의 윗줄에	“가 외자일 경우에는 문 자기호와 숫자기호 사이에 콤마”를 挿入	